어린이 책꽂이

▲언플러그드 플레이=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부모의 일기' 진행자 바비 코너가 말하는 '전기 선 없이도 놀 수 있는 방법'. 게임기나 컴퓨터 없이도 아이들이 즐겁게 빠져들 수 있는 놀이법을 귀띔해준다. 12개월 영아부터 만 10세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방법 651가지를 정리한 '놀이 백과사전'이다. 〈한스미디어·3만2천원〉

▲햄스터, 햄스터를 구하다=글을 읽고 시를 쓸 줄 아는 햄스터 프레디. 1977년 독일청소년문학상을 받은 디틀로프 라이헤의 작품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햄스터의 모험을 담았다. 어느 날 낮잠을 자던 프레디는 엄청난 비명 소리에 잠을 깬다. 야생 햄스터들이 위기에 처하자 다급하게 지른 비명이었다. 〈한겨레아이들·9천원〉

▲오목골 빨강머리 루비='엄마가 사라진 어느 날'로 뉴베리 아너 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루스 화이트의 대표작이다. 혈연과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이 숨 쉬는 가상의 마을, 오목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다. 입양된 소녀 누비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준다. 〈봄나무·9천500원〉

▲오싹오싹 서늘한 여우 이야기=잘잘잘 옛이야기마당 시리즈 네 번째 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우리나라 여우 이야기 가운데 엄선한 6편을 실었다. 소똥구멍으로 소의 간을 빼먹고 부모 형제까지 죽인 '여우 누이', '꼬질이와 여우', '여우 수건'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여우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미래아이·1만2천원〉

▲동물들이 사는 세상=전남대에서 야생동물학을 강의하며 우치동물원 수의사로 일하는 최종욱씨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궁금해 하는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썼다.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15종류의 동물 입장이 되어 들려준다. 〈아롬주니어·9천원〉

▲김학철 이야기-자유 찾아 만리 길='마지막 독립군 분대장'으로 불렸던 중국 옌볜(延邊) 조선족의 상징적 존재 김학철 선생의 일대기를 그렸다. 철부지 소년 홍성걸이 김학철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용군 분대장으로 성장해 소설가로 변신하여 눈감을 때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아빠, 게임할 땐 왜 시간이 빨리가=척척박사 아빠와 두 딸이 이메일로 나눈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엮었다. 시간, 죽음, 차이, 자유와 책임, 전쟁과 평화, 행복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답형식으로 재미나게 풀어썼다. 이메일이 오가는 동안 두 딸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즐기게 되고, 생각의 힘을 키워나간다. 〈토토북·9천500원〉

▲금요일에 만난 개, 프라이데이=영국 작가 힐러리 매케이가 썼다. 엄마와 바닷가 마을에 사는 소년 로빈네 옆집에 괴짜 네 남매가 이사 오고, 로빈과 남매가 함께 떠돌이 개 프라이데이를 돌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다. 어린이의 동심과 따뜻한 마음을 세심하게 표현했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1920년대에도 '보이스 피싱' 있었다

전화의 역사

강준만 지음

1928년 4월 경성 종로, 금은세공 삼광상회에 전화가 걸려왔다. 왕실 일을 맡아보던 기관인 이왕직(李王職)에서 "대비 전하께서 쓰실 금비녀, 금반지 등 170여 원 어치를 가져오라"고 주문하는 전화였다. 삼광상회에서는 당장 물건을 들고 금호문으로 갔는데, 양복 입은 청년이 "왜 이리 늦었느냐"고 호통치더니 "대비께 보여 드리고 쓸 만한 것만 사겠다"며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 자취를 감춰 버렸다.

강준만(53·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신작 '전화의 역사'에서 1928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재구성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원조라 할 만한 '전화사기 사건'의 전말이다.

이 즈음에는 먼 훗날 창궐하게 될 '보이스피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전화사기사건은 끊임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선을 보였다.

'전화의 역사'는 이렇게 전화에 얽힌 한국 생활문화사의 명장면들을 소개한다. 한반도에 처음 전화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110년에 걸친 전화의 역사는 근현대인들의 삶과 욕망을 보여준다.

1896년 10월 2일 궁중과 인천 간에 한국 최초의 전화 개통이 이뤄졌다. 한 달 뒤,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을 살해한 김구 선생이 교수대로 향할 시간, 사형집행 정지를 명령하는 고종의 전화가 김구 선생을 살렸다.

일제강점기 경성은 '전화광 시대'라고 할 만큼 전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이 높았다. 1939년 4월 전화 개통 신청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4천500명이 몰렸을 정도였다.

1960년대 전화가 꼭 필요한 사람은 계주(契主)였다. 계가 당시 '범국민적 재테크 수단'이었으니 당연히 계를 관리하는 계주에게는 전화가 필수였다.

1980년대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리기까지 전화가 산업화 시대 서민들의 "잘 살아 보세"라는 소망의 상징이었다면, 이동전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전화는 시민의 생활상 그 자체였다.

이제 세월은 흘러 휴대전화 4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신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강 교수는 이런 현재의 휴대전화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신흥 종교'에 가깝다고 평한다.

휴대전화는 인간을 고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통로이자 인맥사회에서 생존술이 됐다. 휴대전화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거나 타인과 구별되려는 욕구가 실현되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 치이는 '집단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에서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한국형 평등주의'를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강 교수는 이런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미뤄둔다.

다만, 그는 "한국의 신흥 종교로 부상한 휴대전화 덕분에 한국인들이 좀 더 행복해진다면 더 바랄 게 없겠건만 그게 그렇질 않으니 문제다.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전화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인물과 사상사·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입양아 대모' 50년 의료일기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조병국 지음

'입양아의 대모'로 불리는 전 홀트아동병원 조병국 원장의 삶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가 출간됐다.

의료시절이 부족하던 시절, 두 동생을 잃고 한국전쟁 동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며 의과대학에 진학을 결심한 조씨는 졸업 후 입양기관인 홀트부속의원에서 50년간 버려진 아이들과 입양아를 진료하며 끝없는 사랑을 전해왔다.

책에는 그가 진료 중 만났던 이들과 나눴던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 22편이 실려 있다. 미국으로 입양갔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영수. 어엿한 의대생이 돼 한국을 다시 찾은 영수는 한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입양해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또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파양의 고통으로 상처받았던 기원이가 새로운 엄마를 만나 맺혔던 마음을 풀어가는 이야기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동정했던 아이가 건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 눈물을 흘린 사연 등이 소개된다.

조씨는 1993년 정년을 맞아 홀트 부속의원을 퇴임했으나 후임자가 나서지 않아 전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계속 진료를 해오다 2008년 10월 건강상의 이유로 완전히 퇴임했다.

〈삼성출판사·1만 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할리우드 스타들의 친환경 실천

그린북

엘리자베스 외 2인 지음

뒤뜰에 채소를 심고 남은 고기 지방을 비누로 만들던 할머니를 회고하는 캐머런 디아즈, 샤워는 꼭 3분 이하로만 한다고 고백하는 제니퍼 애니스턴, 양치질할 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타이라 뱅크스.

할리우드 유명 스타하면 왠지 사치스럽고 방탕할 것 같지만 이 책에 소개된 이들은 그렇지 않다.

미국 환경운동가 엘리자베스 로저스와 환경 전문 기자 토머스 M. 코스티젠이 함께 쓴 '그린북'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할리우드 유명 스타 12명이 함께 쓴 실천형 환경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겠다.

책은 외식할 때 병에 든 생수를 사먹지 않고 수돗물 마시기, 호텔 객실 전등 잘 끄고 다니기, 석유 추출물로 만든 크레용 대신 콩기름으로 만든 크레용 쓰기, 전력 사용하지 않은 운동기구로 운동하기, 아스팔트 대신 빗물이 잘 빠지는 다공성 자재로 진입로 포장하기 등 생활 속 습관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바로잡아준다. 책은 또 이름난 스타들의 대담과 그들이 직접 쓴 친환경 실천 에세이를 수록해 친근함을 더했다. 스타들은 환경을 위한 자신의 크고 작은 노력을 소개하면서 '변화의 기쁨'을 강조한다. 〈사문난적·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톨스토이는 왜 안나를 죽였을까

톨스토이, 도덕에 …

석영중 지음

톨스토이(1828~1910)가 마흔아홉 살 때 집필한 '안나 카레니나'. 이 한 권의 책으로 인간 톨스토이를 축약할 수 있을까. 석영중(50·고려대 노어노문) 교수는 "사랑, 결혼, 종교, 윤리, 예술, 죽음, 인생에 관한 톨스토이의 생각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며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답을 찾는다.

난해하기만 한 러시아 문학가의 작품세계에 흥미롭게 써온 석교수는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에서 '안나 카레니나'를 뜯어 읽으며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세계를 살펴본다.

저자는 "작가가 여주인공을 죽인 것이 꼭 불륜 때문만은 아니"라고 짚는다. "톨스토이의 나쁜 사랑은 사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 나쁜 결혼, 나쁜 공간, 나쁜 예술, 나쁜 음식 등과 엮이면서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안나의 죽음을 통해 상류층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읽었다.

저자는 "톨스토이는 예술가였지만 예술을 미워했고, 귀족이었지만 귀족을 미워했고, 90권이나 책을 썼지만 말을 믿지 않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제도를 부정했던 인물"이라 말한다.

내년 11월이면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이 된다. 톨스토이 작품 한 권쯤 읽으며 그가 제안했던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예담·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 영 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형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곡동	일신	105/32	8천	5천6백
	첨계동	대우	158/48	1억9천	1억3천3백
		건영	119/36	1억1천	7백1천
		리인6차	109/33	8천	5천6백
		첨단신경	112/34	1억2천	8천4백
		금호타운	112/34	1억1천5백	8천
	장덕동	주공지이	165/50	3억8천2백	2억6천7백
	신창동	5차쌔르디움	112/34	1억4천	9천8백
남구	송하동	삼익	105/32	9천4백	6천5백
		금호타운	148/45	1억6천	1억1천2백
	봉선동	스위트홈	218/66	4억2천	2억9천4백
		푸른파크	105/32	9천5백	6천6백
		푸동파크	165/50	2억	1억4천
	주월동	쌔르디움1차	158/48	3억1천	2억1천7백
동구	계림동	두산위브	145/44	2억5천5백	1억7천8백
	학동	아남	178/54	1억8천	1억2천6백
	산수동	동산토말	105/32	7천4백	5천1백
북구	용봉동	현대	202/61	1억4천	9천8백
		아이파크	188/57	3억4천	2억3천8백
	임산동	GS자이	161/49	2억9천	2억3백
	문흥동	남양휴튼	145/44	2억3천	1억6천1백
	일곡동	롯데	135/41	1억8천5백	1억2천9백
서구	치평동	금호4차	109/33	1억4천5백	1억1백
		로얄타운	195/59	3억5천	2억4천5백
		현대	158/48	2억1천	1억4천7백
	화정동	대림5단지	181/55	4억	2억8천
	유촌동	비들주공	109/33	1억2천	8천4백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109/33	1억7천5백	1억2천2백

근린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남구	월산동	217/493	3억1천4백	2억1백	3층건물
북구	삼각동	183/358	2억4천7백	1억7천3백	3층건물
	용봉동	328/582	3억8천1백	2억6천7백	4층건물
	오치동	235/389	2억9천6백	2억7백	3층건물
	운정동	645/240	2억1천	1억4천7백	2층건물
서구	쌍촌동	201/384	2억6천3백	1억8천4백	3층건물
	풍암동	225/464	3억6천7백	2억5백	3층건물
담양군	금성면	100/68	4천3백	1천9백	
	담양읍	501/260	3억4천4백	2억4천	
장성군	북하면	1675/561	4억6천5백	3억7천2백	3층건물
	장성읍	519/202	3억5천	1억5천7백	2층건물
화순군	청풍면	2880/298	1억6천5백	9천2백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계동	106평	4억2천5백	1억5천2백	신앙매디컬
북구	중흥동	27평	4억3천5백	1억9천4백	써니스전디
	용두동	89평	4억2천	2억6천8백	양산빌딩
서구	금호동	150평	6억5천	3억6천4백	젬플러스
	금호동	10평	6천	4천2백	호반우미상가
	쌍촌동	110평	3억9천	2억1천6백	베이스타운

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송정동	636/1134	9억7천	3억4천7백
동구	금남로4가	776/3231	31억6천2백	9억8백
	문흥동	261/347	5억1천4백	3억8천3백
북구	북동	114/133	1억3천	5천8백
	풍향동	536/1593	12억8천1백	8억9천7백
	신안동	294/941	7억4천8백	4억7천8백
	오치동	350/1097	8억1천8백	4억5천8백
서구	치평동	262/849	8억1천8백	5억7천8백
나주시	남내동	959/272	5억1천9백	3억8천3백
담양군	수북면	863/876	4억1천8백	1억8천7백
	용면	3054/1195	8억3천	3억7천2백
장성군	삼계면	411/1047	6억5천1백	4억5천5백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동	599/1812	19억9천2백	8억9천2백
		533/2495	25억7백	14억 4백
남구	백운동	509/1389	14억1천9백	6억3천6백
동구	대인동	497/1634	10억8천9백	7억6천2백
서구	광천동	157/465	3억4천9백	2억4천4백
북구	신안동	353/1134	11억5천4백	2억8천4백
	중흥동	145/475	2억6천5백	9천5백
화순군	도곡면	1285/3261	32억4천8백	11억6천3백

콘도/펜션/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동구	계림동	원룸	298/534	4억3천9백	3억7백
북구	풍향동	원룸	179/477	3억4천3백	1억5천4백
	신안동	제일오피스	14평	4천	2천2백
서구	치평동	렌드파이	12평	5천3백	3천7백
		휴먼오피스	16평	7천6백	4천2백

특수물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북구	신안동	553/2865	19억8천5백	7억1천1백

토지(전, 답, 임야, 대지)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동	대지	400/121	4억3천2백	3억2백
	삼거동	임야	4860/1470	1억1천6백	6천5백
	송대동	답	7402/2239	3억3천3백	2억3천3백
	수완동	답	4344/1314	9억1천2백	6억3천8백
서구	매월동	답	1447/437	7천2백	5천
나주시	공산면	목장용지	16260/4918	1억3천	9천1백
	노안면	과수원	2936/888	9천6백	6천7백
	다도면	전	5500/1663	3천8백	2천5백
	금천면	과수원	3416/1033	1억7천	9천5백
	동강면	답	1906/576	2천	1천1백
	공점동	답	2001/605	3천2백	2천2백
담양군	담양읍	임야	56126/16978	4억2천	2억9천4백
		답	4838/1463	10억2천1백	7억1천4백
	대덕면	임야	12198/3689	2천1백	1천5백

토지(전, 답, 임야, 대지)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담양군	봉산면	전	14013/4238	2억2천4백	1억2천5백
	월산면	전	1889/571	1천8백	1천3백
곡성군	겸면	답	2906/879	2천9백	2천
	입면	답	5114/1546	6천1백	4천2백
	입면	임야	7544/2282	1천9백	1천3백
	옥과면	답	3722/1126	4천4백	2천5백
영광군	홍농읍	답	9959/3012	6천7백	4천7백
	군남면	답	5859/1772	5천8백	4천1백
	군남면	임야	23850/7154	9천4백	6천6백
	법성면	염하·목장용지	15064/4556	8천1백	5천6백
함안군	덕진면	답	6770/2048	5천4백	3천8백
	도포면	전	4000/1210	2천8백	1천9백
	군북면	임야	4066/1229	5천8백	4천1백
	시종면	답	3945/1193	2천7백	1천8백
장성군	남면	전	847/258	1천1백	
	황룡면	답	6879/2080	6천8백	4천8백
함평군	손불면	답	9531/2883	5천4백	3천8백
	함평읍	답	4965/1501	7천	4천9백
		답	19200/5806	2억1천1백	1억4천7백
		답	6769/2047	7천3백	5천1백
	월야면	전	1066/328	8백	6백
		대지	1312/396	1천2백	
	학교면	전	1663/503	1천3백	9백
화순군	동복면	답	3317/1003	3천9백	2천7백
	도곡면	답	4038/1221	6천	4천2백
	청풍면	임야	49346/14927	4천4백	3천1백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우산동	167/196	1억1천2백	7천9백
	연산동	1035/234	1억6천3백	1억1천4백
	본덕동	909/144	1억8백	7천6백
남구	월산동	152/144	1억9백	7천6백
		154/191	9천3백	6천5백
북구	운암동	185/211	1억5천4백	8천6백
	두암동	190/134	1억2천8백	8천9백
	누문동	436/80	2억9천4백	2억6백
서구	쌍촌동	197/235	1억7천8백	1억1천4백
나주시	다시면	575/122	4천8백	3천3백
	금천면	995/272	5천3백	3천7백
담양군	대전면	635/188	8천7백	6천1백
	월산면	498/231	6천	4천2백
영광군	도포면	660/127	5천9백	4천7백
영광군	홍농읍	1685/127	1억4천8백	1억3백
장성군	남면	434/138	7천4백	5천2백
	삼서면	668/146	4천4백	3천1백
함평군	손불면	711/221	3천9백	2천2백
	대동면	1243/272	1억1천	6천2백
화순군	남면	330/98	3천6백	2천

• 서구청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명도(이사)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지역 : 전남 · 북, 기타지역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전남 영광군 불갑면 지비리
임야2,3736㎡(7,180평),평당 7천원
-대형차 진입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촌리
임야 13600p -평당 5천원
-도로접, 남향, 야산 경사도완만
▶전남 함평 유곡리
전 493p 매매가 3천2백만
-가족묘지 및 주말농장
-묘지입지조건 대우 양호
▶광주 북구 태령동 영락공원 부근
답 864㎡(261평) 매매가 3,500만
-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팝나무 식재됨, 민원소지 없음
-도로접, 가족묘지 및 주말농장 적합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임야 104,727㎡(32,000평)매가 ㎡당2천원
-관리지역 일부포함. 작은계곡 및 저수지 옆,현 전나무 삼나무식재, 목장용지 가능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임야 및 별장. 73,000평, 평당 1만2천
-도로접 임야이며 현 수령높은 편백나무 숲, 당토지에 80평잡종지, 별장소재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임야 1,670평 평당10만
-계획관리지역 약 800평포함, 차량진입가능,전망권양호. 사찰 및 전원주택지 적합.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및 전1653㎡(500평),평당60만
-담양댐이 바리보이는 주변, 전망권 매우 양호. 실사용평수 약600평
-내부 건축가능한 대지100평포함되어 전원주택및 사찰,가든적합
▶담양군 금성면 봉황리
임야 450,188㎡(13,642평),평당2만5천
-2차선포장도로에 약 100m접, 관리지역 약5천평,지형 완경사이며 전망권좋음.
-민원소지없음 각종시설,공장 및 목장용지 가능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대지,500평 및 1,000평, 평당25만
-2차선도로와 접해있으며 전원주택, 공장,창고등 적합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임야19421㎡(5875평),평당5만
-전체 계획관리지역, 민원소지없음, 2차선도로 약40m접
-각종 공장등 시설물 설치 가능하고 투자가치 양호
★전남 담양군 용면 월계리
임야1,023,002㎡(31만635평)평당5천원
-2차선도로접 관리지역포함, 차량진입가능, 휴양림, 요양원 등 조성가능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전2307평, 평당 18만원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50여m접
-토지주변 감나무 170주 식재, 공장및 창고 또는 투자용으로 적합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답190,528㎡(5만7,634평),평당3만5천
-2차선도로에 접,현 목장용지이며 현황은 답으로 사용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임야 2,567,157㎡(77만6,565평),평당1만
-토지전체 임도개설, 현 밤나무 조림지, 80%이상 개발 가능, 토질 및 전망 양호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임야 28,165㎡ (8,700평),가격은 협의후 결정
-차량접근 가능, 현 매실농장 및 다랑농장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용도에 맞춰 최선을 다해 구해드립니다.